

## 아이지넷 코스닥 입성...인슈어테크 플랫폼 국내 1호 상장사

- ▶ 상장기념식에 베트남 파트너사 메디치 대표이사도 참석...2025년 베트남 진출 본격화
- ▶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인슈어테크 리더'로 도약할 것

<2025-02-04> 아이지넷이 사업모델 특례 상장 및 국내 인슈어테크 1호 기업으로 데뷔했다.

AI기반 인슈어테크 대표기업 아이지넷(462980, 대표이사 김창균, 김지태)이 0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국내 인슈어테크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것은 아이지넷이 최초로, 국내 인슈어테크 1호 상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특히, 베트남 파트너사인 인슈어테크 기업 메디치 덕 안 대표이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14년 설립된 아이지넷은 2019년 인공지능 기반 보험진단 앱 '보닥'을 출시한 후, 2021년 마이데이터 분허가 승인을 기점으로 초개인화 보험 진단 및 추천 서비스 고도화를 구현했다. 보닥으로 검증된 기술력을 토대로 기업용 보험솔루션(마이리얼플랜, 클락패스)까지 확장하며, 보험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아이지넷의 주요 경쟁력은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정제기술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개인별 맞춤 상품 설계 및 진단용 자동화 AI 엔진 ▲초개인화 서비스 구현 ▲높은 고객 만족도 기반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인슈어테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와 고객의 윈-윈 구조를 완성해 플랫폼 사업화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 결과, 연결기준 매출액이 2021년 37억 원에서 2023년 130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86%를 달성했으며, 2024년 3분기에는 171 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이지넷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슈어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파트너십 다변화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를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회사는 GA로부터 총 매출액의 15~25%의 수수료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계약유지율 13개월차 기준 98%(업계평균 84%), 13% 대의 계약전환율 달성, 불완전판매율 0%에 수렴하는 등 시장내 압도적인 성과를 입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외 다수의 GA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실적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를 통해 성장 가속화도 주력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아이지넷은 국내 장기성보험 비대면 판매 시장 개척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 내 베트남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슈어테크 기업 메디치과 MOU를 체결했으며,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메디치 덕 안 대표이사는 아이지넷의 상장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하며 회사와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아이지넷 김지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아이지넷은 국내 인슈어테크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인슈어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며, "임직원, 투자자, 그리고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상장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이지넷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사진설명: 아이지넷 주요 임직원 및 대표이사가 베트남 파트너사 메디치 대표이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왼쪽에서 두번째: 덕 안 메디치 대표이사(베트남), 세번째: 김지태 대표이사, 네번째: 김창균 대표이사)